

광야교회에서 주신 미션과 완전복음

- 복음으로 여는 민수기 -

민수기 14:1-20, 사도행전 7:37-38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어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영원한 천국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이 땅에 복음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램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응답과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하고 원망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의 대가로 40년(정탐기간 40일)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완전복음을 누리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새로운 램넌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민수기는 출애굽 1년 후, 사나산에서 첫 번째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부터 가나안 정복 전에 요단 동편 모압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약 40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스테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회생활이 광야생활과 같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다.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의 인구조사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미션과 완전복음을 주셨다. 결국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1. 첫 번째로 광야생활 속에서 불신앙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 여호와와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노예, 포로생활을 하더라도 불만 불

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이다.

(3)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약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약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모두 재앙으로 죽었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

(4)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2.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주신 미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광야생활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언약을 찾으라는 미션을 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생활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션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광야생활’란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교훈이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광야생활’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다. 광야에서 성막과 예배를 주셨다.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주셨던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고 성막이고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제도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다.

(2) 20세 이상의 백성을 계수하라는 미션을 두 번 주셨다. 첫 번째 인구계수는 민수기 1장이고, 두 번째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라고 책 제목을 정한 것도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실적인 의미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확진자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에서 인구를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사업을 할 때도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군사적인 의미와 언약성취의 의미도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언약의성취가 있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다. 이방민족과 TCK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생명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각 부서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3) 광야생활을 통해 주신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주권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 불신앙과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완전복음의 체질이다. 그 모델적인 인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민수기 14장 9절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 축복으로 바뀐다.

(4)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정한 기일로 지키라는 미션을 주셨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사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WRC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까지 예배를 드리려면, 몇만 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몇만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램넌트들에게 중요한

인턴쉽이 되는 것이다.

(5)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라는 미션을 주셨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이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들은 성령인도와 강단말씀과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머무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직임도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6) 영적인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라는 미션을 주셨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땅에 묻혀 죽는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개하기 않고 또 원망하던 백성들 만 사천칠백 명은 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고라의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거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수기 16장 3절이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화중이 다 각각 기록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함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도 다음과 같이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네가 우리를 쫓고 쫓아 호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인가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말한다. 모세는 오히려 지도자를 못하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우리의 왕이야'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다. 14절이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쫓고 쫓아 호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불평, 불만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받지 못한다.

(7) 정결법에 관한 미션을 주셨다. 민수기에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제 동안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 15절에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 22절이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육신적인 정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결함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과 환경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복음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3. 세 번째로는 민수기에 담겨 있는 완전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단 받는 모습을 통하여 완전복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모세에게 여지문제가 생겼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누나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교회 안의 형제들이 실제로 잘못을 했더라도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는가.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바른 말 하지 마라. 그것은 완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2)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복음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민수기 13장 16절이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본래의

이름은 호세아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신약성서의 '예수'와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완전복음을 이루신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의 믿음과 표징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증거와 길이 되는 것이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보고 불신앙과 원망을 그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4) 낫뿔을 통해서 완전복음을 알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 불평하자 낫뿔을 통해 완전 복음을 알려주셨다. 민수기 21장 9절이다. '모세가 낫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뿔뿔에 물린 자가 낫뿔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장면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왜 나무에 달린 것이 낫뿔일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뿔뿔로 표현한 것이고, 낫은 고난과 죽음, 연단을 상징한다. 그 의미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는다.

(5) 완전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서밋팅임을 가져야 한다. 민수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6) 완전복음이란, 가족 간의 재산분쟁에서도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음의 사람도 재산분쟁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여자의 재산상속'에 한 복음적인 해결법을 알려주면서 민수기를 끝내고 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정, 사업,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성령충만과 지혜, 완전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민수기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완전복음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제자화라고 할 수 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빈 곳에 광야교회의 미션과 완전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올인 할 수 있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할 때 언약적인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광야 같은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생생하게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주간도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